

# ‘창당 시사’ 김무성... ‘분당 기로’ 새누리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서정원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상시국위 “유승민 등 전체 한 뜻...최소 30명 이탈”

### 16일 원내대표 경선·21일 비대위원장 선출 분수령

새누리당 비주류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비주류 모임에서도 집단 탈당을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분당 여부와 탈당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당하나=김 전 대표는 13일 비상시국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와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탈당 후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석한 황영철 비상시국위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김 전 대표가 이 같은 뜻을 전달했고, 유승민 의원도 동의했으며 비상시국위 전체의 뜻은 김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들은 일단 당내에서 변화를 위한 투쟁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 주류가 ‘지도부 사퇴와 친박 8인 탈당’이라는 비주류의 요구를 거부하고 당 운리위원회를 주류 중심으로 재편, 비주류 핵심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출당 작업을 본격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재편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분당 후 신당 창당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탈당 규모는=현재까지 탈당한 전·현직 의원은 3선의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포함 10여명 가량이 있다.

여기에 황영철 의원은 이날 “저희가 (당을) 나가게 된다면, (함께하는) 의원 숫자가 적어도 30명 이상은 될 것이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들 모두가 탈당할지는 미지수다. 또 중도파의 추가 탈당이 가능하냐는 것도 관심거리다. 좀처럼 분열하지 않는 보수정당에서 공천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서 제 발로 대거 뛰쳐나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탈당 시기는=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은 분당 여부를 가리는 ‘1차 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는 21일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전후해 추대하게 될 비대위원장 문제는 ‘2차 내전’이 될 전망이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탈당 여부, 나아가 시기까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내대표 경선에는 친박계에서 김경춘·정우택·홍문종 의원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비주류 쪽에서는 나경원·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만일 차기 원내대표직을 주류에 빼앗길 경우 비주류의 탈당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이해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연해 “지금 현재 친박 표가 비박(비박근혜) 표보다 많다”며 “친박들이 당 지도부에 두 명(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라는 굉장한 큰 숫자를 자기들 사람으로 만들어놓겠다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 김 전 대표가 장담하겠다고 발표한 듯하다”고 말했다.

또 오는 21일 전에 새로 추대될 비대위원장 문제로 비주류의 원심을 커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14일 열리는 의원총회는 전초전 성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류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날 의총은 서로를 향해 겁과 핵심 인사들의 탈당을 요구하거나 축출을 공언한 상태에서 처음 한 자리에서 모이는 것이어서 양측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의총 분위기는 상당히 험악할 것으로 보이며 의총을 통해 드러난 전체적 기류는 경선 결과를 점칠 수 있는 풍향계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동철 “현재 선별심리 불가, 반국민적”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사유를 선별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재의 존립 근거를 의심케 하는 대단히 반(反)국민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사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충분하고, 현재 재판관 6명이 거기에 찬성한다면 그것만으로 빨리 종결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탄핵 사유 13가지를 하나하나 심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촛불민심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로 ‘유일호 경제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

해 “황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임시제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와 사전협의 없이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없는 박근혜 정부를 만들려 하고 박 대통령만 바라보며 권한대행을 하려는 생각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재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 각 당 내부에 존재하는 계파패권주의의 세 가지가 한국정치를 짓누르는 3대 근본악”이라며 “지난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년간 한국사회의 온갖 모순들과 적폐가 쌓여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진 것”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지원 “민주당 야 통합론, 대단한 결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통합을 운운하는데,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대단히 결례된 얘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공개적으로 통합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당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가했다.

앞서 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내년 1월부터 야권통합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논의는 안 해봤지만,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 경고한다. 자꾸 같은 야당끼리 모략하지 말라”며 “어떻게 탄핵발의를 9월로 하려고 한 것을 자꾸 탄핵을 국민의당이 반대

한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자꾸 우리와 새누리당이 야합한다, 연대한다는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며 “국민의당은 이미 총선 민의에 의해 제3지대고 제3당이다.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걸 일면서 말하는 건 옳지 않다”며 거듭 지적했다.

그는 또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총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헌법질서를 지켜야 한다. 만약 그 총리가 부적격하다면 국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야지 그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차별화를 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 추진 논의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이 최소한 3월은 될 것”이라며 “5월 대통령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이에 개헌을 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건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 야 “황 대행체제 일단 지켜보겠다”...전제 속 동행

##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입엔 민주당 “수용”·국민의당 “유감”

야권은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 대해 일단 지켜보겠다고 가닥을 잡은 가운데 견제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다.

정치권이 국정운영의 주축이 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면서도 ‘황교안 내각’의 독주에 확실

히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권한대행 체제를 좀 지켜보기로 했다”며 “경제부총리 문제도 일단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체제에 변동을 주는 것은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현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우리가 황 권한대행 체제를 흔쾌히 허락한 것은 아니다. 황 권한대행 체제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대정부질문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서 황 권한대행의 태도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시사한 셈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입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

총회에서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임시 체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유 부총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유동성을 지원했으나 공중으로 사라졌다”며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야3당, 황교안 대행에 회동 제한

야3당은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국회와 협의가 없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넘어서면 안 된다며 권한 범위와 국정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황 권한대행과 정당대표들 간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적극적 공조를 다짐하는 등 박근혜 정책의 제동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김동철·정의당 심상정 등 세 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3당 대변인이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과도적 국정수습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당대표들과 황 권한대행 간의 금방간 조속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간 합의한 ‘여야정협의체’를 비롯, 정부와 국회간 국정운영 협의체의 구체적인 형태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전망이다.

대변인들은 “오늘 협의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어떤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할지는 황 권한대행과 만나서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평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건물] 순천시 풍덕동 중앙초교 인근 주상복합지대 10층 건물  
토지 349.4㎡ 건물 2,281,94㎡ 감평가 24억3천 ▶ 최저가 17억
- ★ [무인텔최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은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평가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 [건물]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양사남서측 포장도로점  
토지 926㎡ 건물 837.49㎡ 감평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평가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평가 12억7천4백 ▶ 최저가 7억1천4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평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등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평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상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양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토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824평 무인텔 허가 득(19객실)  
매매가 8억3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원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풍향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정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